산상 수훈 서른 네 번째.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이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니까 구하라는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죠? ‘중언부언’ 이란 말이 여기에 나온는데, 그 중언부언이란 한자어를 직역을 하면 ‘무거울 중.’ 이게 인제 ‘짐을 지우다’ 이런 뜻도 있으니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언, ‘말씀 언’ 이니까. 그런 말을, 그 ‘부’ 자가 ‘회복하다’ ‘부활’ 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의 말로 하는 것.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을 회복의 말로 하는 것. 이걸 중언부언이라그래요, 직역을 하면. 그럼 그건 해야되는거죠, 중언부언은? 물론 사전적 의미는 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 하는 것. 그런 걸 가르킵니다만. 그냥 한자의 의미 값만으로 풀어보면 그러하더라는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문자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중언부언이라는 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뭐 그런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 할 때 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지 뭐. 한 말은 절대로 안합니까? 통성 기도 할 때 잘 들어보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밤새도록 말이죠. 그 잠깐 졸다가 또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또 똑같은 말하고.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기도 같은데 보면은? 특히 목사님들. 제일 늦게 나가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대부분 주무세요, 요 앞에서. 누가 나갔나 안 나갔나 이렇게 보고 다 나갔으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서 푹 자죠.

그렇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언부언이라고 해석이 된 그 단어, 바톨로게오란 단어인데 스트롱 사전을 보시면 ‘말을 더듬다,’ ‘지루하게 재잘거리다,’ ‘공연히 반복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맞아요. 그러나 그 단어의 원 의를 이렇게 하나 하나 추적해 올라가면 그 말도 역시 진리로 해석되지 못한 비진리의 그 엉뚱한 말, 그게 바톨로게오예요, 사실은요. 그걸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에 우리가 기도 할 때, 프로슈코마이,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으로 깨달아 내 그것이, 내 원함이 되고 또 그 내용을 이렇게 흘려주는 것 그 전체를 프로슈코마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 할 때 그런 엉터리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주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죠? 그것은 성전 귀퉁이, 큰 길가 모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건 성전 마당 귀퉁이라 그랬죠? 성전 마당 귀퉁이에서 그 눈에 보이는 것 안에 갇힌, 그런 내용을 주절거리는 그런 저급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은밀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는 성전의 골방,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는 거였죠?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한자 용어로 표현해보면 이 보이는 현상계와 그 현상계 수준에서 이해 되어지고 해석 되어진 그 말씀. 여러분 ‘말씀’ 그러니까 그냥 성경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호 코스모스의 세상 전체가 그냥 다 말씀이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이예요. 이거 전체를 그냥 성경이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냥 말씀이예요. 성경인데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이해 되어지면 그거를 ‘차안’ 의 세계라 그러죠? 그리고 그거를 진리로 깨달아 그 내면을 보게되면 그거를 ‘피안’ 의 세계라 그래요. 그 보이는 현상계를 ‘차안’ 으로 이야기한다면 보이지 않는 그 내용을 피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피안’ 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호 코스모스의 세상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를 그 ‘차안’ 의 차원, 그 수준에서 그냥 봐버리면 그걸 죄라그래요.

여러분이 죄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관념부터 다시 정의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진짜 죽을 죄 멸망할 죄는 그 하나님의 진의를 못 알아보고 인간들이 이 보이는 현상계 속에서 자기들을 에너지 삼아, 자기 몸을 불태워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 버리고 거기에 머물러버리는 거. 그게 하마르티아, 과녁에서 벗어난 거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하마르티아라는 게 메로스에다가 하라는 부정어가 붙은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메로스가 아니라, 그 뭐죠? 부분?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하여튼 그 있잖아요, 왜. 자칼과 네케바. 그 히브리어에 고 한 부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될 때 그걸 ‘온전’ 이라 그래요. 인간은 영,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지어졌어요. 그걸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재라는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것으로 흡수 되어지고 함몰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존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그건. 그 자체를 그냥 악이라 그래요, 악.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나면 하나님 자신도 우리와 하나 되어 그렇게 우리와의 연합된 어떤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도 온전 하시기로 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이예요. 여러분 그걸 하나님의 성육신이라 그래요, 엄밀히 말하면은 그거 자체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존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은 저 밖에 그냥 따로 계시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운을 받아서 연합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니깐요. 그건 하나님의 자해 사건 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그걸 십자가로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나님과 연합된 내가 바로 존재가 되는 거군요’ 그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그 반쪽인 나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자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 마르티아’ 라는게 뭐냐면은 과녁을 벗어 났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되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내가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걸 부인 해버리고 그 반쪽인 자기의 주체성을 주장해 버리면은 그걸 죄라 그런다니깐요, 성경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사회법적인 어떤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을 죄라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건 죄의 증상일 뿐이예요. 이 지구상에 역사와 인생이 내어 놓는 것 중에 죄 아닌게 어딨어요. 근데 그것으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거’ 알게 해주려고 너희에게 그걸, 눈에 보이는 그걸 준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차안의 세상 속에서 그 피안을 반드시 찾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죽음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 복음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하고 자꾸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차안의 이 세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이 세상에서 자꾸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걸 전부 여러분의 머릿 속에 다 넣어서 꾹 눌르면 그냥 할렐루야 아멘이 튀어나오는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으로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자꾸 잊어먹어야 돼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된다니깐요. 그건 아주 초보자의 수준이예요. 그걸 자기에게 자꾸 쌓아서 이걸로 어떤 자기를 과시 할려고 하고 구원을 설명 할려고 하는 그 수준은 아주 유아기의 수준이예요. 여러분은 진짜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히려 성경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하는게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차안의 세상 속에서 피안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 갈수록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욱더 깊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참 불가능한 존재로 자꾸 나에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은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게요. 그러나 자기의 자인식은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아.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내 ‘아, 그거 아니지’ 하고 돌아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다는 증거라니깐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내가 진리 진리 진리 복음 복음 복음 구원 구원 구원. 여러분이 자꾸 그러다보면 그게 또 여러분의 올무가 된다니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 할 때 중언부언 하지 않도록 은밀한 진리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뭐겠어요? 문을 찾아야죠. 골방으로 들어가려면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예요. 성경에서는 그 문을 ‘열린 문’ 이라고도 하고 ‘천국 문’ 이라고도 하고요, ‘양의 문’ 이라고도 하고 여러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은밀한 지성소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양의 문’ 을, 우리가 양이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그 문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문은 죽기 위해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양들이 양의 문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 중에 양의 문이 있었잖아요. 그 문은 양들이 잡혀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양들을 그리로 집어 넣어서 살려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 양의 문은 여러분이 죽으러 들어가는 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 바로 뒷 장으로 가면 그 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우리는 성전 마당에서 율법적 신앙 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 마당의 그 희생 제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골방이라는 단어가 ‘조제실,’ ‘약방’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떡 만드는 거, 기명 만드는 거, 향단의 향 만드는 거, 기름 준비하는 거. 이런걸 다 그 골방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 걸 조제 했단 말이예요. 그렇게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성전 마당에서 눈에 보이는 차원의 것들로 아무리 열심을 부려 봐야 그렇게 열심을 부린 만큼 멸망에 가까워 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감추어져 있는 은밀함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는거예요. 근데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래요. 여러분은 좁고 협착한 문과 크고 넓은 문이 요렇게 있을 때 어떤 문을 선택 하시겠어요? 인지상정으로. 크고 넓은 거 선택하죠? 누가 또 좁고 협착한 문이라그래? 변태도 아니고. 솔직해 지시라니깐요. 누가 거길 기어 들어갈라 그래요. 카타콤이나 갑바도기아 같은데 들어갈려면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 뚱뚱한 사람은 가다가 끼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크고 넓은 문을 사람들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게 되면은.

크고 넓은 문이라는 건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문이란 뜻이예요. 그래서 ‘야, 저리로 가는게 맞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 문을 ‘크고 넓은 문’ 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그 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좁고 협착한 문’ 이라고 쓰인 그 단어가 뭐냐면 사전 갖고 오신분들 찾아보세요, 헬라어 사전. ‘좁은’ 이란 그 단어가 왜 ‘좁은’ 인지를 설명해 놓아요, 사전이. 그 스테무스 라는 단어는 원래는 좁은 것이 아닌데 장애가 그 앞에 놓여 있어 좁아지게 된 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큰 문이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장애가 놓여져 있어 그게 좁아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문에 그 장애물을 누가 놓았을까요? 마귀가 와서 놓았을까요? 하나님이 놓으셨을까요? 선악과 패러다임 속에 완전히 장악이 되어버린 인간의 마음이 그 장애물을 놓는 거예요, 스스로. 양의 문,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은 ‘누구나 다’ 라는 그 대상을 향한 그 진리라는 내용을 가진 열린 문이예요. 원래 넓은 문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그리로 들어가야하는 문이란 뜻이예요.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란 뜻이 아니라. 이런거까진 설명 안해도 되는데 하여튼 요새 게시판 보면 고런 것들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어디까지 설명을 해주고 가야되는지 말이죠.

그런데 선악 체계 속의 아담들은 그 진리의 문 앞에 율법이라는 장애물을 스스로 놓아요, 자기들이요. 그 짐을 스스로 자기들이 그 문 앞에다가 부려놓는다니깐요. 그리고는 스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담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좁은 문’ 이라는 거예요. 그리로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좁은 문 정도가 아니라 아무도 못 들어가는 문이란 뜻이예요, 그건요. 장애물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문.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자, 이 장애물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예요.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못 들어 간다라는 뜻이예요. 인간들이 율법으로 장애물을 쌓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문이 진리의 문이예요.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율법의 두 마음으로 가진 이들에게 있어서 진리의 문은 생각하기도 싫은 문인 거예요. ‘하나님처럼’ 의 그 삶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인간이 그 삶을 추구해요) 그런 자신에게는 영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거든요. 아니, 엄밀히 말해서 그 은혜의 문이라는 건 율법의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문이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의 상징입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율법은 그 문을 닫아요. 뭘로? 율법으로 닫아버려요, 장애물을 놓아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려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율법의 장애물에 막혀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천국 문이예요. 좁은 문이예요. 성경을 이렇게 선악 체계 속의 아담들이 진짜 크고 넓은 진리의 문을 자기들 안에 그 율법의 두 마음으로 좁고 협착하게 만들어 버렸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 속 진리의 문의 현실이예요.

그런데 선악과 패러다임 하의 인간들은요 그게 구미에 맞아요. 그 문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이거든요. 그리고 자존심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문이예요. ‘좁은 문,’ ‘넓은 문’ 그러니까, ‘그래 예수 믿는 건 이렇게 고생 고생하면서 가는거야, 이렇게 그냥 가난하게 가는거야, 이렇게 어렵게 가는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돼요. 좁은 문이라는 건, 그리고 넓은 문이라는건 모든 인간들의 구미에 맞아서 모든 인간들이 찾는 그 문을 넓은 문이라고 하고 좁은 문이라는 건 인간들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인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아 인간들이 그렇게 장애물을 쌓아 놓아서 인간들이 ‘저 문으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인식 할 수 밖에 없는 그 문이 좁은 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대한미국에 기독교인이 뭐 천 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25프로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 안되는 소수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다니깐요. 그러면 넓은 문은 뭐겠어요?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라니깐요. 사람을 위한 기독교. 좁은 문은? 하나님 중심인 기독교예요. 사람들은 그거 탐탁치 않게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넓은 문은 하나님과 굳이 상관없는 사람들도 언제든지 택할 수 있는 그런 문이예요. 모든 종교인들이 다 그 문을 택해요. 굉장히 포용력 있는 문으로 보이죠? 그래서 ‘넓은’ 문이예요. 그래서 아담들은 그 율법의 문으로 몰려들어요. 어차피 주어진 육신과 세상의 자원으로 열심을 부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진리 같은건 몰라도 되고 복음 같은거 상호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가진 자원, 열심히 불살라서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예요.

중요한 건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차안의 세상,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세상, 이 호 코스모스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그대로, 율법으로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선악과’ 부터 거치고 가야 된다니깐요. 생명나무부터 덥석 못 잡는단 말입니다. 당연히 율법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들도 골방으로 들어가는 그 진리라는 문 앞에 엄청난 율법의 장애물을 쌓게 되어있어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근데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 율법이라는 그 죄,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 열린 문, 그 천국의 문이 내 죄로 막혀 절대 나에게는 열릴 수 없는 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인간이 그 문 앞에 자기 율법, 자기 행위, 선악과 먹은 아담의 행사로 그 문 앞에 장애물을 쌓아 놓고 못 들어가거든요, 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만 ‘맞아, 내 죄로 저 문은 저렇게 막히는 게 맞아!’ 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뜻이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만 그게 좁은 문이예요, 그걸 모르는 이들은. 그게 넓은 문이라니깐요. ‘아냐,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거야’ 하고 가고 있다니깐요. 근데 성도는 ‘아냐, 그것으로 내가 저 문 앞에 장애물을 놓은 거야. 그게 죄니까요. 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는 그 죄 때문에 저기 못 들어가’ 하고 그들만 인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하나님 살해한 자고 내가 불가능한 흙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고백하게 됩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자신들의 율법적 죄로 꽉 막혀버렸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래, 그거 봤어? 그 좋은 문으로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고생 고생하는 그 길을 택해,’ 이런 말이 아니라니깐요. 좁은 길, 좁은 문. 산동네의 그 좁은 길, 그런데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선악과 따먹고 선악의 죄 속에 뒹굴면서 그 안에서 생산해 내는 세상의 열매들로 그 진리의 문, 천국의 문을 너희들이 막았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게 문이야, 이런 거예요. 그게 문이야. 아니, 알면 그게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좁은 문으로, 그게 들어간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은 은혜의 문인거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 막혀버린 그 스테노스의 좁은 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작품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할 때 그 좁은 문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게 뭐예요? 율법이지 뭐예요. “다 절도요 강도니” 율법은 절도요, 강도죠. 뭐 이건 구약에서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거니까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을 설교하는 사람들이 없었나요, 구약 때? 많았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근데 양들이 듣지 못했다라는건 무슨 말이예요? 그 안에서 진리를 끄집어 내지 못했단 뜻이예요. 예수보다 먼저 온 자들의 그 말 속에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 먹더라는 거예요, 진리를. 못 꺼내 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락날락하면서 밥준다, 이런말이 아니라 ‘들어가서 나오게 된다’ 이런 뜻이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들어가 나오게 된다는 뜻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죠, ‘내가 양의 우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러 왔다’ 그래요. 불러내러 왔다고. 근데 원래 그 성전 안에, 성전은 성벽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 성벽 밖에 있는 존재들을 외인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밖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구별된 자라고 구약성경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성채를 두르고 성벽을 두른다라는 것 자체가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을 둘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의 모든 기명을, 밥상도 떡상도 그렇고 그릇도 그렇고 이렇게 다 성채를 만드는 걸 아세요, 거기에다가? 왜 그런줄 아세요? ‘이거 거룩한거야, 이거 깨끗한거야, 성 안에 들어있는 거야’ 라는 뜻이예요. 그래서 그런 기명에 전부 성채를 만든다니깐요. 근데 그 성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예요, 그죠? 근데 얘네들이 그 성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밖에 있으면 다 죽는다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주었더니 그 안에서 그 성벽 밖의 외인처럼 율법적으로 그냥 살아버리는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리로 넣어야 사는 건데 그들이 그 안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넣는 것으로 하나 설명을 해줘야 돼고 그 넣음으로 빼내야 되죠, 거기서? 그래서 구약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왜 밖에서 그러고 있어!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다니깐요. 성전 안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놓고 거기를 애굽처럼 살고 있구나, 라고 누누히 말씀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이들은 들어가서 나와 참 꼴을 먹을거야’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와서. 그건,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어서 나온다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차안의 세계 속에서 이 차안의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이들은 그 속에서 죽어 피안의 존재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 대회 이런거는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런걸 뭐하러 하냐고 그거를. 저는 요즘 이제 한글 성경의 그 예전에 수백 구절 외웠던 걸 거의 다 잊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다보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이 되니까, 그걸 자꾸 버리게 되고 안 보게 되니까 그건 다 잊어먹었어요, 또.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디서 찾을 수가 없네. 근데 괜찮아요. 옛날에는 진짜, 제가 그 엘피판이 한 삼 천개 있었는데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이렇게 뒤로 앉아서 손으로 탁 찍으면 그거였어요, 이렇게. 그거처럼 성경도 설명 할 때 아무데나 펴서 그걸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안돼요. 못 찾겠어, 인제. 그리고 또 찾아봐야 그게 그거가 아니라. 근데 상관 없어요. 우리는 그 말씀, 그 수 많은 말씀, 수만 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가페의 그 사랑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들어가서 죽고 나오며 사는 거예요. 율법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 죽고 자유한 자로 살아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가 뭡니까. 부활, 영생의 생명이죠. 그걸 얻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된대요?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예요. 여러분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이 반드시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니깐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래요. 근데, 그 예수라는 문으로 누가 들어갔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라는 문으로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문이야. 이리로 들어와. 내가 지금 진리의 말을 전해주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 했는데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니,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말은 하셨지만 여전히 그 역할이 성전이요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양들이 또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온 절도요 강도의 소리를 양들이 못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예수의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 들으면 안돼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죠? 그들에게 (문제는 그들의 두 마음이니까) 새 마음을 주어 그 새 마음으로 듣게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랬죠? 근데 그 성령은 예수의 그 육적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오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육신이 그렇게 이 차안의 세상에 대하여 죽고 이 세상 안에서 죽고 그래야 영으로 부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되면 양의 문이 ‘아, 그게 좁은 문이구나. 나 때문에 장애물이 놓여진 그런 내가 못 들어갈 문이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만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좁은 문. 거기로 들어가. 거기로 들어가.’ 면목 없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은혜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이 진리의 골방인 것입니다. 그 골방 속에서 진리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그 은밀함을 드러내주죠? 그 진리의 내용이 꽉 차있는 곳이 지성소, 그 골방이예요. 성도는 그것을 꼴로 먹는 거예요. 하늘 양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렇게 양의 문, 그리스도의 은밀한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들은 절대 그 진리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어디로 들어가라, 들어가라. 에이세르코마이, 에이세르코마이. 이런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들어가 들어가 제발 들어가. 어디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내쳐지면 안돼.’ 밖으로 끌어내어 이를 갈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밖으로 내쳐지면 안돼요.

마태복음 25장 10절 보세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기름 사러 간 거예요. 자, 기름은 사고 팔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장사치들의 굴혈읿니다, 그것이. 장사하는 소굴이예요, 그게. 기름은 절대 사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돈, 우리의 열심, 이런 걸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신랑이 옴으로 예비 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에이세르코마이. 들어가고 어떻게 됐대요? 문이 닫혔다 그러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들어갔더니 문이 닫히네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이제 밖에 있는 처녀들이 있어요.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노라예요. 알지 못하였노라가 아니고. 처음부터 알지 못하였노라. 내 눈에는 너희들이 안 보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눈에, 내 안중에도 없어. 처음부터 나는 너희들을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로 끌고 들어간다는 말이예요, 그 좁은 문으로. 죽여서. 죽이러 데리고 들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어리석은 처녀, 밖의 미련한 처녀. 밖에 놓여있는 미련한 처녀라고 번역이 된 그 모로스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7장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 라는 말 나오죠. 그 어리석은 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모래는 뭐죠? 하늘에서 비가 모래처럼 내리면 그게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비, 말씀의 비, 진리의 비라고 이야기 하니까.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진리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해서 그게 뭐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휘청휘청, 안 그래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진짜 단단한 건물은요 모래 위에 짓는대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거 다 모래 위에 지은 거거든요? 그 어떤 천재지변에도 꿈쩍안하는 건 그거 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거 이야기 하는게 아니라 비진리 위에 세워 놓으면은 하나님은 그거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예요. 아무리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 놓아봐야.

그러니까 율법의 옛 성전, 율법 위에, 모래 같은 율법 위에 율법의 옛 성전 그걸 지어 놓으면 그게 어리석은 자인 거고 그들이 문 밖에 있는 어리석은 처녀인 거예요. 기름, 말씀, 진리를 준비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당연히 혼인잔치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된 이들만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이들만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 내용들을 들어요. 에스겔서 37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일단 살려놓을게 그러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일단 살려 놓을게 그리고 문 안으로 들여 보내는 거예요. 그 이후론 거기서, 그 골방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의 그 골방, 은밀한 그 골방, 여러분 내부 세계의 그거. 거기에서 여러분은 평생 그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번 진리의 문이 닫히면 그 문은 절대 열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달음박질 하는 자, 원하는 자,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 하죠? 거기 뭐 달음박질 한다고 들어갈 줄 알아? 아무리 두들겨봐. 못 들어가요. 인간의 원함으론 들어갈 수 없는 곳이예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린다는 건 뒤를 못 돌아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서 뒤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언약이 네크로스로 성취가 돼버려요. 그러면 소금, 언약이죠? 그 소금 언약이 여러분 안에서 그 여러분 안의 그 진리로 성취가 되면 그 안에 성취된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흘러 나올 때 그걸 빛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소금 언약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면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렇게 증인으로 흘리게 되고 그걸 빛이라 그래요, 성경이. 근데 이 소금이 엉뚱하게 성취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자 소금 기둥이 되는데 언약이 저주로 완료가 되고 성취가 돼버리면 큰일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 안에서 그 언약은 성취가 돼요. 근데 소금 기둥으로 성취가 되면 안된다니깐요.

그렇다고 롯이 뭐가 달랐어요? 다른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손목 잡고 끌고가는 자예요. 돌아볼려고 하면 다시 모가지를 꺾어서라도 앞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 하나님이 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롯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사자를 보내서 ‘너희들 여기서 나가야돼. 그리고 절대 뒤돌아 보면 안된다. 빨리 나가’ 그랬을 때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이 하나님이 그러는데 여기 빨리 나가랜다.’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다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죠? 롯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서 안 나갔으면 지라도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간건 뭐예요? 자기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손목 잡더니 끌고 나갔다니깐요. 끌려 나가면서도 드럽게 말도 많어. 저기 가라니까 ‘아니, 일로 가면 안돼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절대 뒤 못 돌아보게 만들어 버려요. 문을 아주 닫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문이 닫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그 열 처녀의 비유가 끝나고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고 두 비유를 호스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어요. 그 단어는 ‘위의 것과 똑같이’ 이런 말이예요. 그러면 그 밑에 나오는 비유가 달란트의 비유거든요. 그럼 열 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똑같은 거겠네요? 호스펠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니깐요. 그럼 그 비유는 뭡니까? 다섯을 줬더니 다섯을 남기고 둘을 줬더니 둘을 남기고 하나를 줬더니 하나를 남겼어요. 맞아요? 아니죠, 하나 줬더니 묻었잖아요. 다섯은 뭐였어요? 펜타툭. ‘다섯’ 인데. 모세 오경을 펜타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 전체, 십계명의 다른 말이예요, 그냥. 다섯 계명이라는 건. 그래서 십계명도 다섯 다섯으로 나누어서 다섯은 구약 다섯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설명 해 주는 거고, 그냥 다섯이예요. 모세 오경이예요. 오, 펜타툭.

자, 율법을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줬더니 다섯으로 남겼다, 그러죠? 거기서 ‘다섯으로 남겼다’ 라는 말은 알라, ‘다른 다섯으로’ 포이에오,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예요. 다섯을 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다른 다섯으로 되게 만들었어요. 율법을 줬더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성취하신 주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착하고 충성된 종은 종의 형태로 오신 주님 밖에 없어요. 다섯을 줬더니 다른 다섯으로 그것을 되게 만든, 성취하게 만든, 완성하신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하셨어요. 둘을 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섯을 둘로 줄여주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도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이룬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분이 다른 둘로 포이에오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그 율법의 완성자는 주님이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섯 둘을 주님이 성취한 것으로 우리가 받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아요. 무엇으로 받아요? 하나로 받아요. 모노게네스, 하나로 받아요. 사랑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받으면 그냥 우리는 ‘아, 내가 여기에 뭔가를 보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셔서 내가 이걸 하나로 거저 받은 거구나’ 라고 하면 내가 거기서 부인되는 거고. 내가 부인된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 이게 허벅지를 찔러가며 부인하는게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부정 될 수 밖에 없는 죽은 흙이구나를 깨닫는 걸 내 부인이라 그래요. 자기 부인. 내가 자기 부인을 해야지 그러면 그건 또 율법이라니깐요.

자, 그렇게 그걸 받으면 내가 부인이 되는 것이고 그건 그걸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고걸 자유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보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군요, 라고 그 하나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로 하나, 다른 하나를 내가 포이에오 ‘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다섯은 밖에 있었잖아요. 다섯은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호펠로 ‘이거와 똑같이’ 라고 했으면 지금 어떤 이들은 안에 들어와 있고 어떤 이들은 밖에 있는 자의 모형으로 지금 설명 되고 있을 거 아니예요. 그 밖에 있는 어리석은, 율법의 모래 위에 율법의 성전을 지은 자의 모형으로 하나를 받은 자, 그자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어떻게 오해하는지를 보여줘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우리 주인은 심지 않는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는데서 모으는 자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예요, 그건? 우리 주인은 지가 일해서 자기의 소득을 얻어내는 그런 주인이 아니라 나에게 일 시켜먹어서 내가 내놓는 어떤 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 이게 율법주의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시는 분이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하시고 그렇게 창조를 완료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창조에 우리라는 인간이 뭔가 보탤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데서 모으신다는 것이지. 예, 창조의 원리를 잘 안거예요, 그러나 껍데기 표피적으로만 안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은 일을 안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를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심어, 자기를 죽이는 그 일로 열매를 맺으시고 모으시는 분이라니깐요. 하나님은 당신을 심어, 한 알의 밀알로 심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분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시켜서 내가 행하는 만큼 당신의 유익으로 챙겨 갖는 분이다, 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이며 그것이 밖에 있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심지 않는데서 거두는 악한 자’ 라 그래요. 그래서 묻어 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장중 밖에서 생산될 수 있는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성취하고 발전시키고 번영시키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려봐야 그건 하나님이 준 걸 묻었다가 주는 격 밖에 안된다니깐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 하냐면 ‘당신은 나에게 내 열심과 노력과 내 자원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내라고 끊임없이 요구하는 악한 분이야’ 라고 갖고 있어요, 생각을. 그분에 대한 생각을. 그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번아웃 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악대며 손가락질 하는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들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게 그런거라니깐요.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한다고 이야기 하지만 ‘천국 갈려고 나는 그거 해’ 라고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안하면 그 양반이 나 천국 안 보낼거야, 라는 그 말이라니깐요. 그게 그 하나님을 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다섯을 다섯으로 다른 다섯으로 성취하시고 둘을 다른 둘로 성취하시고, 그걸 다 성취하셔서 하나로 우리에게 준 거 그걸 우리가 누리라고, 그 사랑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로 남기면 되는 건데 그걸 그냥 묻어 뒀다가 ‘이거 원했던 거였죠?’ 라고 이렇게 줘버리는 거. 망해도 상관 없다니깐요, 하나님은. 아니 장사를 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 주인은 내가 이거 장사해서 다 날려먹어도 나를 용서하실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장사를 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묻어 두게 된다니깐요. ‘아냐, 이거 장사하다 날리면 나 죽일거야.’ 그리고는 그 비유가 그대로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래 그렇게 밖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율법주의와 은혜 아래 있는 자로 요렇게 나눠지게 되면 이제 밖에 있는 자는 ‘저놈 끌어내다가 밖에서 이를 갈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그 하나를 누리지 못하고 오해한 그 자를. 여러분, 밖에 있는 자 안에 있는 자가 나눠질 거 아니예요,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있는 거고, 그걸 율법으로 곡해를 해서 지 열심으로 하나님께 뚝 내놓은 자는 지금 밖에서 이를 가는 자란 말이예요. 이를 간다는 것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헛 것을 씹는다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먹지 못하고 헛 것으로 씹으면 이만 가는 거예요, 씹는게 없어서. 그게 ‘이를 간다’ 는 뜻이거든요? 지옥에서 이를 간다는 건, 먹을 거 없는 곳에서 자기들은 뭘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씹는게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이제 심판대 앞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그 비유에 딱 붙어 있는게 양과 염소의 심판이예요.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양, 밖에 있는 자들은 염소네요, 그죠? 근데 양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뭘 했습니까’ 그러죠? 염소는? ‘내가 뭘 안했다 그래요?’ 그런다니깐요.

그러면 골방 안에 들어 간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하나님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이 구원에, 이 하나님 나라 완성에 내가 기여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는 내 육의 죽음으로 간다는 뜻이예요. 우리는 거기서 그거 배우는 거라니깐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로 가요. 근데 이게 무슨 방종이나 이런 곳으로 가는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라면 내가 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히 가치 있는 어떤 업적과 성숙과 이런 것을 이루어 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자랑이 될까요? 안되죠. 바꾸어 말해서, 뒤집어서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종교인들이 보기에 별반, 대단하지 못한 그런 뭐 지지부지한 열매를 좀 맺었다고 해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않을 수도 있다니깐요. 그걸 자유라 그래요. 근데 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지 못하면 그런 걸 이해햐지 못하죠. 진짜 성숙이 뭔지를 모르면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좋아서 천국 가고 싶은거예요, 아니면 거기 좋다니까 내가 원하는게 다 구비되어 있다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그 사사건건 간섭하는 그 영감은 없었으면 좋겠죠? 그게 악한 주인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럼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문이 닫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제가 다른 곳으로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리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보세요.

이 날 곧 안식 후 첫 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이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숨어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돼요. 여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말은 호 포보스, 호 유다이오스 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유대적인 것의 두려움’ 이런 뜻이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필연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두려움, 공포. 그러니까 유대주의가 생산해 낼 수 밖에 없는 그 두려움. 자, 그것 그 팔의 날에 안식의 날에 (진짜 안식의 날이죠), 그 날에 제자들이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문이 이미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에 푹 젖어서 예수마저도 죽여버린, 그 진리마저도 떠나버렸던 그 제자들이 아직도, 아직도 그 유대적인 것 (호 유다이오스)의 공포에서 못 벗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일례로 베드로가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고 한참 지난 후인데도 주님이 고넬료에게 가서 ‘너 복음 전해라’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이방인에게, 부정한 것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다니깐요. 그건 그렇게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예요.

팔의 날에 제자들이 골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는 진리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적인 것의 공포로 말미암아 그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때 주님이 들어오셨다 그러는데 들어오신게 아니라, 이게 문이 다 닫혔는데 벽으로 쑥 들어왔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골방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뜻이예요. 그 골방의 주인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골방 안에서 문을 닫고 유대적인 것으로 두려워하자 그 주인인 예수님께서 성전 마당 귀퉁이가 아닌 가운데에 (이스테미) 굳게 서서. 그러니까 예수의 그 수식어가 뭐냐면 19절 26절 다. ‘가운데 굳게 서신 예수’ 예요.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예요, 그게. 가운데 것으로 굳게 서신 예수가 그들에게 말을 하세요. 그 유대적인 것의 공포에 여전히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평강.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솨람, 샬롬. 솨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그 뜻이? 분석하여 가르친 진리. 이것이 솨람이예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 열심, 그 은혜, 그것을 한 마디로 축약하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복음 전체를 한 마디로 축약해’ 그러면 ‘평강’ 이라그래요. 솨롬, 샬롬 이라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 전체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 그게 뭐였어요? 야라, 기리키다. 샬롬, 예루 살렘이란 말이예요, 그것이. 근데 그 예루 살렘으로 복음, 솨람, 샬롬을 알으라고 가르켰더니 그것으로 열심히 율법을 행하는 거죠.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골방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바로 그 진리 그 복음인거예요. 가운데 것으로, 지성소의 것으로 우리가 알아먹어야 할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비에 써서 당신의 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돌비 돌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하라 그랬습니까?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어요. 법궤 속에, 상자 속에다 넣어 놓고 보지도 말라 그랬다니깐요. ‘너희들 그거 껍데기로, 문자로 그렇게 보면 니들 죽어’ 라는 뜻이예요, 그게요. 그게 담고 있는 그 내용으로 너희들이 산다, 란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이 행할 바를 찾으시면 안돼요. 그럼 그 법궤 뚜껑 열고 자꾸 그거 읽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즉시 즉사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그 은밀한 것, 그 평강의 그 내용을 전해받은 그 이들이 어떻게 중언부언 하겠느냐, 이런 말이예요, 오늘 본문은. 그 중언부언, 바톨로게오라는 말은요 듣지 못해서 올바로 말을 못하는 자란 뜻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하고, 벙어리들. 벙어리라는 병은 없습니다, 여러분.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하게 되는 것 뿐이예요. 사고로 혀가 짤렸다든지 이런게 아니면 그런 병은 없어요. 귀가 망가지면,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 이걸 바톨로게오라 그래요. 중언부언이란 뜻은 그 뜻이예요. 바톨로게오는. 이게 바토스 하고 로고스 의 합성어예요. 로고스, ‘말’ ‘말씀.’ 그러니까 바토스는 올바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말을 더듬다, 이런 뜻이예요. 바토스. 그런 말, 이게 바톨로게오란 말입니다. 근데 그 바토스는 ‘가시덤불’ ‘찔레’ 이런 뜻도 있어요. 구약에서 가시덤불 찔레는 항상 뭘 상징한다?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들어 율법으로 말하면 그게 ‘듣지 못하고 말을 중얼중얼 더듬는다’ 라고 이야기 하는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예요. 바톨로게오예요, 그것이.

그 바톨로게오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고 바톨로게오 위엣 단어가 있어요, 사전에 보면. 그게 바트라코스예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여름밤에 떼로 와글와글 와글와글하면 그거 어떤 기도원 생각나죠? 거 개구리소리 같아요. 와글와글 와글와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근데 그 개구리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성경에 율법에 보면. 그리고 애굽의 열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이 있죠? 그게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어요. 다산의 신. 개구리 알 무지하게 많이 낳죠, 그죠? 다산의 신이예요.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은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설명해 드렸지만) 예수가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게 생육과 번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씨에 의해 번식되는게? 근데 이 호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인간들이 육신으로 생육 번성하게 되면 그게 곧 저주예요, 여러분. 그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난태생으로 알을 낳으면 그게 부정하다 그런다고요. 근데, 그 중에 알을 제일 많이 낳는게 개구리란 말이예요. 다산의 신. 그러한 인간들, 아담들의 속성을 가진 그런 자들이 내어 놓는 그 말이 바톨로게오예요. 와글와글 와글와글. 목적이 거기인 자들의 말. 바톨로게오. 그 단어가 신약에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구약에도 (고와 똑같은 히브리어가 있는데) 딱 한 번 등장해요.

이사야서 32장 1절 보세요. 이레그 (עִלְּגִים : illeg**)**라는 단어인데.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 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을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이게 바톨로게오, 이레그라는 뜻이예요. 어눌한 자. 그 혀가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중언부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분명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귀도 뚫리고 눈도 열리고 말도 분명해진대요. 떠듬거리지 않고 중얼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 바톨로게오를 그냥 헬라어로 풀어버리면 코포스 모기랄로스인데요. 우리말로 바꾸면 ‘귀가 먹어 말을 더듬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말이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볼까요? 마가복음 7장 32절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이게 코포스 모기랄로스예요. 한 단어로 바꾸면 바톨로게오.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그러니까 귀가 먹어 말이 안되는 자란 뜻이예요, 이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서 안수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손을 얹다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오른 손 권능의 손 이거는 말 그대로 권능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내 위에 부어주세요’ 이런 뜻이예요. ‘손 얹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능력을 나에게 두어, 그 능력을 나에게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듣고 말하는 문제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손가락을 귀에다가 대셨어요. 성경에서 손가락, 구약성경에서 에츠바 (손가락)란 단어는 항상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 가리키는 것. 그래서 뭐, 악인에게도 그 손가락은 그런 의미로 쓰이고 하나님에게도 그 손가락은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친히 쓰셨다, 라고 할 때 그게 손가락이라는 뜻이예요. 손가락으로 쓰셨다,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가락, 예루살렘 그 샬롬을 가르치기 위해 가리키는 것. 그게 손가락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가락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 이런 뜻이죠? 그것이 막힌 귀에 가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면 어떻게된다? 그게 뚫린다는 거예요. 그게 뚫리고 그분의 침이 혀에 붙어버린다, 라는 의미로 써요, 이게. ‘아교로 꽉 붙여버리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침이 뭡니까?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한 이가 침을 뱉어 그 침을 맞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근데 정한 이의 침이 상대방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정 해져요. 그게 뭐냐면, 나쁜 말. 인간이 갖고 있는 ‘물’ 있죠? 입으로 나오는 물. 술먹고 토하는 거 말고. 침밖에 더 있어요? 입으로 나오는 그 물에 의해 어떤 이는 부정해지고 어떤이는 정해지는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침, 그것이 그의 어눌한 혀 (바톨로게오), 그 혀에 붙어버린다그러는데 그 혀가 글로사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이라고 번역 된 그 말.

제가 방언이 뭐라 그랬어요? 딴 건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의가 아닌 표피적이며 문자적인 것으로 그냥 전해지면 그게 내용 없는 방어이라 그랬죠? 피리 소리, 거문고 소리, 생명 없는 소리.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걸 글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글로사. 그 Tongue. 혀에 방언에 예수님의 그 침, 그 진리의 말씀이, 물이 짝 붙어버리자 그의 혀가 풀렸다 그러죠? 그게 그의 혀가 구속 되었던 것에서 풀려났다, 이런 뜻이예요. 그리스도가 귀먹고 말 어눌한 (바톨로게오) 그러한 자에게 가서 그 진리로 뚫고 들어가면 먼저 그 귀가 열리고 그 귀가 열리면 그 혀가 방언, Tongue을 말하던 그 혀가, 중언부언하던 그 혀가 풀려 분명한 말을 한다 이런 뜻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들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는 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뭐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듣는 것의 주체는 그 말 중언부언 하는 자들이예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에게 들려주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많이, 그러니까 폴룰로기아라고 쓰는 그 단어를 번역한 건데 그 폴룰로기아는 ‘많은,’ ‘대부분’ 이런 뜻에 그 폴루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말.’ 중언부언하는 자들의 말이 대부분의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거 말하지마’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의 폴룰로기오, 그 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율법적인 그 말, 문자적이고 표피적인 그 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말, 그 말 안에 들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 이런 말이예요. 진짜 들을 건 골방 안의 은밀한 것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중언부언 하지마. 그거 외식하는 자야. 근데 사람들은 그 중언부언하는 그 많은 말 (대부분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 안에 들을 것이 있다고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을 줄 알고 많이 반복해서 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냥 한 마디만 해도 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예요. ‘한 마디를 해도 진리의 그 말을 해’ 이런 말이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너희가 간구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게 아이테오, ‘빚 갚으세요’ 라는 말이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기로 한 그거 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다라 그래요, 성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나의 결핍을 채우시기 위한 어떤 것인데 우리는 이 현상계 속에서 그 나의 결핍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나는 죽어요, 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결핍이라고 생각하는 거와 아무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아이테오, 구하기 전에 너희가 엉뚱한 거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너희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그래요. 우리의 결핍이 뭡니까? 생명이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 호흡. 그거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아니요, 그거 말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산 자로 살 수 있는 어떤 자원이나 에너지를 달라’ 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사용 해버리는 거죠?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바톨로게오. 개구리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구리들의 말. 바톨로게오. 그런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결핍 그것으로 기도하라는 건데 여러분이 그 결핍이 정말 여러분의 결핍이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프토코스예요. 근데 그 결핍이 아닌 다른 결핍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프토코스한 자가 어니예요. 페네스한 자죠. 그냥 육신에 필요한 것들,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고 있는 거. 그러니 이거는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구분은.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너희들에게 내 기도 가르쳐 줄게. 니들의 기도는 요만큼이야.’ 고걸 주기도문이라 그래요. 고만큼 줬어요. 니들의 기도의 내용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 그게 요만큼.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러는 거예요. 장로나 목사한테 기도시키면 길게하니까 그냥 짧게. 다른 의미 없어요. 짧게 끝내자, 그거지.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일용한 양식 이외에 (그것도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 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는 내용이 단 한 줄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내용이예요. 그걸 프로슈코마이, ‘기도’ 라고 한다니깐요. 그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고 내용을 한 번 살펴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정말 우리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일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어떤 존재에게 그저 뿌려대는 바람에 날리는 겨 같은 그런 말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바로 그 기도,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 내용,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짜 기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